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2보)

-톤 온 톤배색을 중심으로-

**A Study in the Perception of the Harmony of Coloration in
Traditional Korean Dress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On the Tone on Tone Coloration-**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강 경 자

Dept. Clothing and Textil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Kyung-Ja Kang

(2001. 8. 9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mpare the evaluation of tone on tone coloration of traditional Korean dress by Korean and American women college students.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evaluate 48 stimuli of the traditional Korean skirt and jacket with different tone of color. The evaluation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admit of various interpretation, and it can be said that they were caused by their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The results of reseach can be summerized as follows.

As to the red colors, Korean students evaluated vivid skirt and light or dark jacket, light skirt and vivid or dull, dark jacket, dull skirt and light jacket as harmonized. But American students judged light skirt and dull and light jacket as not hamonized.

As to the yellow colors, both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had common opinions that light skirt and dull jacket are well harmonized. Korean students thought vivid skirt and dull jacket, light skirt and dull, dark jacket, dull skirt and dark jacket are well harmonized. American students thought light skirt and vivid, light, dull jacket, dull skirt and light jacket are well harmonnized.

As to the green colors, Korean students evaluated vivid skirt and dull, dark jacket, light skirt and vivid, dull, dark jacket are well harmonized. But American students evaluated vivid skirt and light jacket, light skirt and dark jacket, dark skirt and vivid or light jacket are not harmonized.

Among 48 stimuli of tone on tone coloration, Korean students evaluated 18 set and American students judged 30 set as harmonized.

Key words: tone on tone coloration, Korean dress, harmony, tone, perception ;
톤 온 톤배색, 한복, 조화, 톤, 지각반응

I. 서론

우리는 주변의 두 색상에 대해서 색상차이를 느낄 때 색상들끼리의 조화를 생각하게 된다. 특히 의복에서의 색상은 그것이 어떤 색과 배합되느냐에 따라 더 돋보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결국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색들을 조합하여 배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로 귀결된다.

학자들은 실험미학적 방법으로 조화론을 연구하였으나 의복에서의 색채조화는 보다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으로 다른 디자인요소와 함께 이루어지는 조화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함으로 조화와 배색의 질서를 설명하기란 쉽지않다.(이호정, 1997). 색채의 조화를 위한 배색에서는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그 기초가 된다. 이와같이 색의 조화는 3개의 속성에 의해 조작되지만 일반적으로 색상에 중점을 두어 조화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Moon과 Spencer의 연구에서는 색상을 기준으로 한 조화의 방법은 적당치 않고 오히려 명도, 채도차가 조화에 깊이 관여한다고 보았다(김수석, 1993:132). 금기숙(1992)도 한복에서의 색조화의 특징은 맑고 밝은 색상들과 맑고 짙은 색상들의 심한 명도차에 의한 명도대비가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조화가 되는 색상관계에 있더라도 적절한 명도, 채도차가 있으면 분명히 조화를 이룰수 있으므로 명도의 차가 조화-부조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더구나 사람들은 의복에 조합시킨 배색을 조화 또는 부조화라고 평가함에 있어 각각 감정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색채조화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느낌에 근거하고 있어 개인차가 크다. 또한 각 나라의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조화의 개념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를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명도에 변화를 준 다수의 배색을 보여주고 자신이 느끼는 조화의 정도를 판단하게 한후 얻어진 데이터를 통계학적 방법으로 수량화하여 색채조화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명도차에 의한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1보)에서 각

톤별(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로 치마와 저고리의 색상을 달리 조합하여 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 지각하는 조화감 정도는 문화간에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일한 톤으로 색상차이에 중점을 두어 평가되었으므로 상·하배색시 톤차이에 따른 조화감 즉 톤 온 톤배색에 대한 조화감은 규명되지 않았다. 더구나 치마·저고리의 명도차이에 따른 배색의 조화판단에서도 개인 및 문화간의 차이가 큰 배색과 그 차이가 적은 배색이 존재한다면 이들 배색에 대한 교차문화적 접근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배색시 색상의 조합에 초점을 두지않고 치마·저고리의 색상은 동색으로 하고 톤에 차이를 둔 톤 온 톤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하게 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한국과 미국여대생이 느끼는 조화영역과 동시에 부조화영역을 밝힘으로서 배색조화의 이론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한 한복배색에 대한 판단이 우리만의 것인지, 아니면 타문화권에서도 공감되고 있는지를 밝혀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보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복에서 치마·저고리의 톤차이 즉 톤 온 톤배색에 대한 조화 정도를 밝힌다.
- 2) 한복의 톤 온 톤배색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 반응에서 문화간의 차이를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오랜 예로부터 음악이나 조형에서 미를 추구하여 표출하는 원리로 중시되어온 미적형식원리안에서 가장 정묘한 것이 배색조화이론이다. 그뿐 아니라 다양성의 통일에서 아름다움의 완전성을 구하려는 이 조화의 원리는, 오늘날의 배색에 있어서도 색의 체계적인 조건과 결합방법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다(박은주, 1999:232).

19C에 Chevreul은 색채조화이론을 발표하였고 20C에 들어와서 독일의 Ostwalt가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Munsell이 발표한 조화론을 Moon과 Spencer가 발전시켰다. Chevreul은 색의 삼속성에 근원을 두고 조화에 대해 원리를 세웠으며 유사조화와 대비조화로

구분하였다. 유사조화는 명도, 색상, 주조색에 따른 조화로 나누고 명도에 따른 조화는 단색에 있어서 각각 다른 색조의 명도를 동시에 색합시키므로서 얻어지는 조화라고 하였다.

배색의 출발점은 한 색으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를 두색 이상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내는데 있다. 비록 그것이 같은 색이라도 2색 배색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색상, 명도, 채도의 차가 조화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김수석, 1993:128). Moon과 Spencer는 색채간의 조화를 분류할 때 한 속성만 다르고 나머지 두 속성이 같은 경우, 두 속성이 다르고 나머지 한 속성만 같은 경우, 세 속성이 모두 다른 경우로 나누고 있다. 한 개의 속성이 다를 경우에는 명도만 다른 경우, 채도만 다른 경우, 색상만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유송옥, 1996). 특히 한복은 두색이상의 배색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의복형태이다. 강혜원·고애란(1991)은 한복의 배색이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이혜숙·김재숙(1998)은 한복이라는 동일한 의복형태라도 색에 따라 착용자의 이미지가 다르고 단색과 배색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색상의 조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각 색상을 알맞는 명도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색상의 배색이라 하더라도 주색채의 명도와 부색채의 명도 또한 이들의 명도대비정도에 따라서 의복전체의 느낌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 대체로 명도차가 클수록 조화되기 쉽고 명도차가 적을수록 조화되기 어렵다. 또한 명도차가 클 경우는 채도차가 적은편이 보다 조화되기 쉽다. 또한 색상차가 적을수록 그 조화는 명도차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색상차가 클 때는 비교적 명도차에 의한 영향이 적다. 따라서 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명도는 색상의 톤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색상과 마찬가지로 명도도 관계가 애매할 때 부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부조화의 원인이 되는 애매한 원인중에서 가장 주의하여야 되는 것이 명도차의 애매함이다(이은영, 1992:133). 명도차이는 1단계이상인 경우가 바람직하며 대비의 조화에서는 5~6단계의 차이가 나는 것이 효과적이다(이호정, 1997:85).

톤에 따른 배색유형은 일반적으로 톤은 동일하고 상·하색상에 차이를 둔 톤인 톤배색, 동일색상이면

서 상·하톤에 차이를 둔 톤온 톤배색, 또한 색이나 톤이 현저하게 대비되는 콘트라스트 배색등으로 구분된다(오희선·박화순, 1999; 조필교·정혜민, 1999). 어느 유형이 조화로운 배색인가는 단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는 주관적인 느낌에 근거하므로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조화의 범위가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다. 즉 폭이 꽤 넓은 색채의 척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폭이 좁은 척도를 가진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고을한, 1999:17).

Kobayashi(1981)는 색의 삼속성을 단순화하여 색과 톤의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한 이미지 측정에서 색이미지는 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와 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였다. Winakor와 Navarro(1987)는 무채색의 명도(어두운, 중간, 밝은)와 의복유형(dress, suit, sport)이 의복착용자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의복착용자에 관한 호감 평가에 대해서 의복색의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미쳤고, 의복유형은 체계적이며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강경자는(2001)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복배색의 톤인 톤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 조화-부조화라고 지각되는 배색이 구분되었고 이들 배색의 조화범위가 문화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두 문화권의 여대생들은 이들 배색의 조화판단에서 대체로 공통된 보편성을 보이는 반면에 동색배색의 조화감평가에서는 문화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떤 문화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되는 배색이 다른 문화속에서 반드시 조화로운 배색으로 지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 문화내에서의 미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경험이 조화판단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톤차이에 따른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교차문화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한복의 구조는 일정하여 주로 색상에서 변화를 시도한다. 뿐만 아니라 동일색의 톤차이에 의해서도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한복의 상·하배색에서 톤(명도) 차이 즉 톤온 톤배색에 따른 조화감 평가시 인종·문화를 초월한 공통된 보편성과 함께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일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문화간의 상대적

차이의 경향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한복자극물과 이에 대한 배색 조화감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스타일은 얼굴과 헤어 스타일을 통제된 상태에서 치마·저고리의 전통한복을 착용한 여자의 모습으로 1보에서와 동일하다.

한복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성방법이며 배색구성은 저고리의 깃과 고름색의 툰을 치마색의 툰과 동일하게 하고 저고리색의 툰은 다르게 하였으며 문양, 염색, 끝동 등은 없는 것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선정된 치마·저고리의 색상은 빨강, 노랑, 초록이며 각 색상의 툰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가 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색상과 툰은 <표 1>과 같다.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툰

색상	빨강(Red)	노랑(Yellow)	초록(Green)
비비드(vivid)	5R 4/14	5Y 8.5/14	5G 5/10
라이트(light)	5R 8/6	5Y 8.5/6	5G 8/4
덜(dull)	5R 5/6	5Y 7/6	5G 6/4
다크(dark)	5R 2/6	5Y 3/4	5G 2/4

한복착용자의 그림을 CAD system(4D-BOX 6800 Zun system)에 scanning하여 이미지를 입력시킨 다음 선정된 색상을 치마·저고리에 각각 배색되도록 색상과 툰을 조작한 후 프린트하였다.

최종 자극물은 무채색을 포함한 28가지(7색·4톤) 치마색과 12가지(3색·4톤) 저고리색을 조합하여 만든 총 336(28×12)개의 실험배색으로 선정·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보에서 사용한 저고리색을 기준으로 3가지 색상 즉 빨강, 노랑, 초록을 각각 치마·저고리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상·하동색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작된 색상을 채도는 중간으로 통

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치마·저고리가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툰이 되도록 한 후 이들 툰을 상·하의에 차이하도록 조합하였다. 즉 전체 자극물 336개 중 동색계열이면서 상·하의의 명도가 차이하도록 조합된 툰은 툰배색 총 48개(3색·4톤·4톤=48)의 자극물만 본 연구의 평가에 사용되었다. 이때 배경색은 흰색으로 통제하였다.

2) 자극물의 평가

한복배색의 자극물에 대한 평가는 미국여대생의 경우 총 336개의 자극물을 20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16~17장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당 피험자 수는 실험조합별로 10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되었다. 따라서 각 피험자는 1개의 무선조합에 배치되어 16~17장의 자극물을 평가하였으므로 피험자내 설계와 피험자간 설계가 병행되어 이루어졌다. 한국여대생의 경우 피험자내 설계에 의해 한 피험자가 모든 자극물(336)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피험자가 동시에 모든 자극물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한번에 16-17장의 자극물을 제시하고 20회에 걸쳐 색상배색에 대한 조화감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 16~17장은 색상과 툰에 의한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지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하였다.

3) 조화감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 속의 한복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화되는 - 조화되지 않는'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7단계 의미미분척도를 제시하였다. 왼쪽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주고 오른쪽 극단에 배치된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부여하여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자극물에 대한 조화감척도의 신뢰도를 밝히기 위하여 예비조사시와 동일한 대상인 44명의 여대생들에게 예비조사 시와 동일한 자극물(5개)을 평가하게 하였다. 검사-재검사(test-retest) 방법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745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평가자는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으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생활과학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Human Ecology)에서 consumer science와 environment textile and design을 전공하는 여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1998. 11월~1999. 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국의 여대생은 경상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중인 여대생 83명을 대상으로 1999. 10월 초~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구하고 t-검증,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으로 LSD(최소유의차검증)을 하였으며 그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IV. 연구 결과

한복의 배색은 3가지 저고리색인 빨강, 노랑, 초록을 상·하동색이 되도록 한 후 채도는 통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치마·저고리의 톤을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으로 조작하여 상·하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시켰다. 한·미여대생을 대상으로 조합된 48개의 톤은 톤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시켜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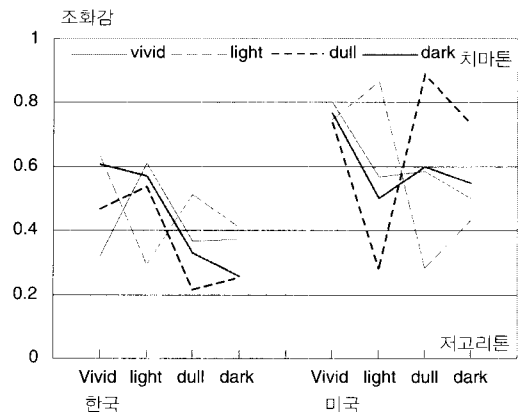
1. 빨강 톤은 톤배색에 대한 조화감 비교

4가지 톤의 빨강색 치마·저고리를 톤이 서로 다른

도록 조합시켜 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는 <표 2>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1) 치마색의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저고리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치마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톤의 빨강저고리에 치마색을 4가지 톤으로 각기 조합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치마톤 즉 치마의 명도 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미국여대생은 치마의 톤에 관계없이 조화감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여대생은 비비드톤의 저고리가 라이트, 다크톤의 치마와는 잘 조화되지만 같은 톤인 비비드 치마와는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4가지 톤 중 같은 톤인 비비드 빨강 치마와 가장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한국



[그림 1] 빨강 톤은 톤배색의 조화감 비교

<표 2> 빨강 톤은 톤배색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비교

치마	저고리	비비드(vivid)			라이트(light)			덜(dull)			다크(dark)			F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빨강 (red)	vivid	.318cD	.800aA	.0000***	.610aA	.567bAB	.6139	.367bB	.583bAB	.0224*	.372aB	.500abB	.2012	.0001***	.1830
	light	.635aA	.750aA	.1547	.293cD	.867aA	.0001***	.513aB	.283cD	.0187*	.407aC	.433bB	.7627	.0001***	.0001***
	dull	.470bA	.733aA	.0090**	.529bA	.283cB	.0057**	.216cB	.883aA	.0000***	.247bB	.733aA	.0000***	.0001***	.0001***
	dark	.608cA	.767aA	.0024**	.573abA	.500bcA	.4300	.329bB	.600bA	.0142**	.256bB	.550abA	.0037**	.0001***	.3241
	F값	.0001***	.9397		.0001***	.0009***		.0001***	.0011**		.0001***	.2031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치마톤은 a>b>c, 저고리톤은 A>B>C로 표시

*p<.05 **p<.01 ***p<.001

여대생과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또한 비비드 빨강저고리와 비비드, 덜, 다크톤 치마와의 배색을 한국보다 미국여대생이 더 높게 지각하여 문화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라이트톤 치마와의 배색은 양국여대생 모두 잘 조화된다는 공통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다음은 라이트 톤의 빨강저고리와 4가지 톤의 빨강치마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미여대생 모두 치마의 톤 변화에 따라 그 조화감은 차이를 보였다. 한국여대생은 같은 톤의 라이트 치마·저고리를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덜톤의 치마와는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미국여대생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비비드, 다크톤 치마와의 배색은 양국여대생 모두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덜톤의 빨강저고리를 4가지 톤의 치마와 각각 조합할 경우 한·미여대생 모두 치마의 톤에 따라 조화감은 다르게 지각되었다. 한국여대생은 4가지 톤의 치마중 라이트톤만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특히 덜톤의 동색배색은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덜톤의 동색배색이 가장 잘 조화되고 라이트톤 치마가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한국여대생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다크톤의 빨강저고리를 4가지 톤의 치마와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톤에 관계없이 어떤 톤의 치마와도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라이트 톤을 제외한 덜, 다크, 비비드톤의 순으로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한국여대생과는 차이를 보였다.

2) 저고리색의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치마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저고리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톤의 빨강 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색과 각각 조합할 경우 양국여대생은 비비드톤의 치마와 라이트 톤의 저고리가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조합한 비비드 저고리와 라이트 치마도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양국여대생은 상·하의 면적

에 관계없이 이들 톤의 조합을 조화된 배색으로 지각하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여대생은 비비드톤의 치마와 라이트톤의 저고리만 조화된다고 지각하였으나 미국여대생은 비비드, 덜, 라이트, 다크의 순으로 저고리톤에 상관없이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간에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라이트톤의 빨강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각각 배색할 경우 양국여대생은 저고리의 톤에 따라 그 조화감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국여대생은 라이트 치마가 비비드나 덜톤 특히 비비드톤의 저고리와 가장 잘 조화되고 라이트, 다크 특히 같은 톤인 라이트톤의 저고리와는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비비드나 라이트 특히 톤이 같은 라이트의 저고리와 가장 잘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덜톤인 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라이트톤의 저고리가 가장 잘 조화되고 같은 톤인 덜톤과는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미국여대생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양국여대생은 상·하 톤이 뒤바뀐 덜 저고리와 라이트 치마의 배색에서도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다크톤의 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비비드, 라이트톤의 저고리와는 잘 조화되고 덜, 다크톤의 저고리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다크톤의 치마가 4가지 톤의 저고리와 모두 잘 조화된다고 평가하여 저고리의 톤변화에 상관없이 조화되는 배색으로 지각하는 반면에 한국여대생은 저고리톤에 따라 조화정도를 다르게 지각하였다.

2. 노랑 톤 온 톤배색에 대한 조화감 비교

한·미여대생을 대상으로 4가지 톤의 노랑색 치마, 저고리를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시켜 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는 <표 3>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1) 치마색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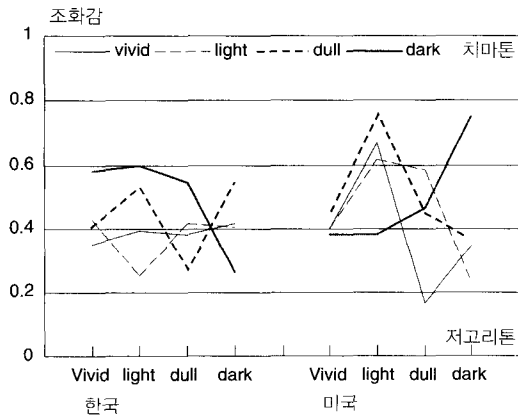
각 톤별로 저고리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치마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먼

〈표 3〉 노랑 톤은 톤배색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조화감 비교

저고리 치마	비비드(vivid)			라이트(light)			덜(dull)			다크(dark)			F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노랑 (yellow)	vivid	.353bA	.400aB	.6357	.393bA	.667aA	.0032**	.381bA	.167bB	.0006***	.418bA	.350bB	.4480	.4902	.0030**
	light	.427bA	.400aAB	.7901	.253cB	.617abA	.0002***	.416bA	.583aA	.0641	.405bA	.233bB	.0333*	.0001***	.0289*
	dull	.405bB	.450aB	.6252	.526aA	.750aA	.0123*	.272cC	.450aB	.0599	.548aA	.367bB	.0514	.0001***	.0427*
	dark	.579aA	.383aB	.0147	.597aA	.383bB	.0129*	.547aA	.467aB	.3571	.267cB	.750aA	.0000***	.0001***	.0365*
	F값	.0001***	.9705		.0001***	.0264*		.0001***	.0254*		.0001***	.0039**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치마톤은 a>b>c, 저고리톤은 A>B>C로 표시

*p<.05 **p<.01 ***p<.001



〔그림 2〕 노랑 톤은 톤 배색의 조화감 비교

저 비비드 톤의 노랑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를 각기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치마의 톤에 따라 그 조화감평가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국여대생은 비비드 저고리와 다크톤의 노랑치마를 가장 조화로운 배색으로, 미국여대생은 가장 부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지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떤 톤의 치마와도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색상이 갖고 있는 특성에서 오는 것으로 톤에 관계없이 노랑의 부정적 평가 이미지가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라이트 톤의 노랑저고리에 4가지 톤의 노랑 치마를 각각 배색할 경우 양국여대생 모두 치마의 톤에 따라 조화감은 다르게 지각되었으며 미국여대생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여대생은 라이트 톤의 노랑저고리가 비비드나 라이트톤의 치마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다크톤 치마와는 조화되는 것으

로 지각하여 미국여대생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어 문화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양국여대생 모두 덜 톤 치마와는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덜톤의 노랑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를 각각 조합할 경우 양국여대생은 치마의 톤에 따라 조화 정도를 다르게 지각하였다. 문화별로 보면 한국여대생은 4가지 치마톤 중 다크톤의 치마만 조화되고 상·하 색상이 같은 덜톤일때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미국여대생은 라이트 톤의 치마와 가장 잘 조화되고 비비드톤의 치마와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한국여대생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다크톤의 노랑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를 각각 조합할 경우 양국여대생은 치마의 톤에 따라 차이를 보여 치마의 톤이 조화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대생은 덜톤의 치마와 가장 잘 조화되고 상·하가 같은 다크 톤일때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상·하가 같은 다크톤일 때 가장 잘 조화되고 라이트 톤의 치마와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한국여대생과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2) 저고리색의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치마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저고리 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감 정도를 살펴보면 비비드 노랑치마에 4가지 톤의 저고리를 각기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의 어떤 저고리 와도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라이트톤의 저고리와는 잘 조화되고 비비드, 다크, 덜 특히 덜톤의 저고리와는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저고리톤에 따라 조화감은 다르게 평가되었다.

라이트톤의 노랑치마에 4가지톤의 저고리를 각기 조합하여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어떤 톤의 저고리와도 조화되지 않았으며 특히 같은 톤의 라이트 저고리가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상·하가 같은 라이트톤일 때 가장 잘 조화되고 덜톤일 때도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다크톤의 저고리가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국여대생 모두 저고리톤이 조화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톤의 노랑치마를 4가지 톤의 노랑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양국여대생은 저고리톤에 따라 조화정도를 다르게 지각하였다. 한·미여대생은 라이트톤 저고리와는 잘 조화되고 비비드나 덜 특히 치마와 같은 톤인 덜톤의 저고리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는 공통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들 반응은 미국여대생들이 대체로 상·하 같은 톤을 조화로운 배색으로 지각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다크톤의 노랑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같은 톤의 다크저고리와는 매우 조화되지 않지만 비비드, 라이트, 덜톤의 저고리와는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여대생들은 한국여대생과는 정반대로 상·하 같은 다크톤만이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문화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양국여대생 모두 저고리톤에 따라 조화감은 다르게 지각되었다.

3. 초록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비교

한·미여대생을 대상으로 4가지 톤의 초록 치마·저고리를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시켜 평가시킨 결과는 <표 4>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1) 치마색의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저고리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치마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감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초록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를 각기 조합할 경우 양국여대생 모두 치마의 명도에 따라 조화정도를 다르게 지각하였다.

비비드 초록저고리는 한국여대생의 경우 같은 톤인 비비드 치마와, 미국여대생은 라이트톤의 치마와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문화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비비드의 초록저고리가 한국여대생의 경우 다크톤의 치마와, 미국여대생은 덜톤의 치마와 가장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다음 라이트 톤의 초록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와 각기 조합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다크톤의 치마와 가장 잘 조화되고 상·하가 같은 라이트톤일 때 가장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지각하여 미국여대생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양국여대생 모두 비비드, 덜톤의 치마와는 비교적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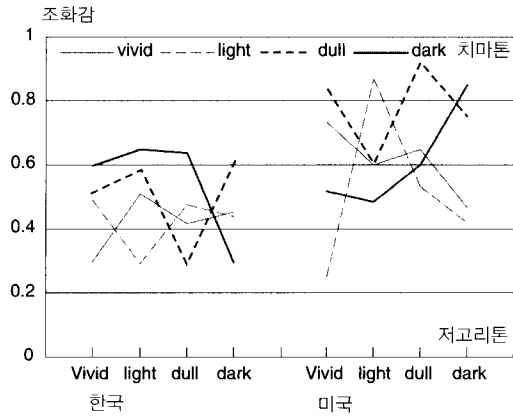
다음으로 덜톤의 초록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를 각기 조합할 경우 양국여대생 모두 치마의 톤에 따라 조화감 정도를 다르게 평가하였다. 한국여대생의 경

<표 4> 초록 톤 온 톤배색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비교

저고리 치마	비비드(vivid)			라이트(light)			덜(dull)			다크(dark)			F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초록 (green)	vidid	.300cC	.733abA	.0000***	.510bA	.600abA	.3593	.416bB	.650bA	.0102**	.454aAB	.467bA	.8963	.0001***	.2992
	light	.489bA	.250cC	.0097**	.289cB	.867aA	.0000***	.474bA	.533bA	.5184	.437aA	.417bB	.8383	.0001***	.0004***
	dull	.514abA	.833aA	.0005***	.586abA	.600abA	.8877	.300cB	.917aA	.0001***	.611aA	.750aA	.8824	.0001***	.0024**
	dark	.597aA	.517bB	.3666	.649aA	.483bB	.0631	.639aA	.600bAB	.6423	.294bB	.850aA	.0000***	.0001***	.0486*
	F값	.0001***	.0001***		.0001***	.0528		.0001***	.0259*		.0001***	.0172*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치마톤은 a>b>c, 저고리톤은 A>B>C로 표시

*p<.05 **p<.01 ***p<.001



[그림 3] 초록 톤 온 톤 배색의 조화감 비교

우 톤의 초록저고리가 다크톤의 치마와 잘 조화되지만 비비드나 라이트톤과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같은 톤인 덜톤의 치마·저고리를 한국여대생은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미국여대생은 가장 잘 조화되는 배색으로 지각하여 상반된 평가를 하였고 비비드, 다크, 라이트 치마와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톤에 관계없이 모두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다음 다크톤의 초록저고리를 4가지 톤의 치마와 배색할 경우 양국여대생 모두 치마 톤에 따라 조화감은 다르게 평가되었다. 양국여대생은 비비드, 라이트톤의 치마와는 조화되지 않고 덜톤의 치마와는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같은 톤인 다크톤의 치마·저고리를 한국여대생은 가장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미국여대생은 가장 조화되는 배색으로 지각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2) 저고리색의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치마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저고리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감 정도를 살펴보면 비비드톤의 초록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색과 각기 조합할 경우 양국여대생 모두 라이트톤의 저고리는 잘 조화되고 다크톤의 저고리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비비드나 덜톤

치마와의 배색을 미국여대생은 조화로, 한국여대생은 부조화로 지각하여 문화간에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저고리톤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그 조화정도를 다르게 평가하였고 미국여대생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 라이트톤의 초록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색과 조합할 경우 양국여대생은 저고리톤에 따라 조화감을 다르게 지각하였다. 한국여대생은 라이트톤의 초록치마가 어떤 톤의 저고리와도 조화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라이트, 덜톤과는 조화되며 특히 같은 톤인 라이트 초록치마·저고리를 가장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한국여대생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덜톤의 초록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색과 각기 조합할 경우 양국여대생은 비비드, 라이트, 다크톤의 저고리와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톤인 덜톤의 초록치마·저고리를 미국여대생은 가장 잘 조화되는 것으로, 한국여대생은 부조화로 평가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양국여대생 모두 저고리톤에 따라 조화정도를 다소 다르게 지각하였다.

다크톤의 초록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각기 조합할 경우 양국여대생은 저고리톤에 따라 조화감 정도를 다르게 지각하였다. 한국여대생은 라이트톤의 저고리와는 잘 조화되고 같은 톤의 다크저고리와는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미국여대생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양국여대생은 모두 비비드나 덜톤 저고리와의 배색은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이상에서 대체로 상·하동색일 경우 미국여대생은 같은 톤의 배색이 보다 조화감을 높인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한국여대생은 치마·저고리의 톤이 차이가 있는 배색 즉 진한것과 연한것의 배색을 보다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한복에서 색상차이가 없을 경우 그 조화감은 명도차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복에서 색조화의 특징은 맑고 밝은 색상들과 짙은 색상들의 심한 명도차에 의한 명도대비가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본 금기숙(1992)의 견해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미여대생을 대상으로 조화정도를 분류하기 위해 색의 삼속성중 한 개의 속성만을 다르게 하였다. 즉 한복배색에서 빨강, 노랑, 초록을 각각 상·하동색으로 한 후 채도는 통제하고 명도만 변화시켜 상·하의의 톤을 다르게 조합한 48개의 톤 온 톤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 및 양국여대생의 지각반응에서 문화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빨강의 톤 온 톤배색 16개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된 배색의 수를 보면 한국여대생은 6개, 미국여대생은 13개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한국여대생은 비비드저고리에 라이트나 다크치마, 라이트저고리에 비비드나 덜, 다크톤의 치마, 덜저고리에 라이트 치마의 배색이 조화되고 상·하 같은 톤의 빨강은 4가지 톤 모두에서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라이트저고리에 덜치마, 덜이나 다크저고리에 라이트치마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라이트와 덜톤을 치마나 저고리 어느 쪽에 가도록 조합하여도 한국여대생은 조화로, 미국여대생은 부조화로 지각하여 두 문화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비비드와 라이트톤의 배색은 치마·저고리에 바꾸어 조합하여도 양국여대생 모두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노랑색의 경우 양국여대생은 톤 온 톤배색 16개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된 배색수는 5개, 부조화로 지각된 배색수는 11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화되는 배색의 종류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양국여대생은 라이트저고리에 덜치마가 조화된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두 문화권의 차이를 보면 한국여대생은 비비드저고리와 다크치마, 라이트저고리와 덜, 다크치마, 덜저고리와 다크치마 그리고 상하가 뒤바뀐 다크저고리와 덜치마도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어느쪽이든 면적에 상관없이 덜, 다크의 배색을 조화롭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라이트저고리와 비비드, 라이트, 덜치마, 상하가 뒤바뀐 덜저고리와 라이트 치마, 같은 톤인 다크 치마·저고리가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대

체로 미국여대생은 상·하의 톤이 같을 때 조화로운 배색으로 지각하였으나 비비드나 덜톤의 노랑에서는 부조화로 지각하여 이러한 경향이 부정되었다.

초록색의 톤 온 톤배색 16개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된 배색의 수는 한국여대생의 경우 7개, 미국여대생의 경우 12개로 나타났다. 한국여대생은 비비드저고리와 덜 및 다크치마, 라이트저고리와 비비드, 덜, 다크치마, 덜저고리와 다크치마 그리고 면적이 뒤바뀐 다크저고리와 덜치마가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비비드저고리와 라이트치마, 라이트저고리와 다크치마, 다크저고리와 비비드나 라이트치마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상에서 동일색상의 톤차이에 따른 총 48개의 톤 온 톤배색에 대한 두 문화권의 지각반응을 보면 조화된다고 지각된 배색의 수는 한국여대생의 경우 18개, 부조화로 지각된 배색은 30개로 나타나 조화를 이루는 배색의 분포범위가 좁았다.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30개의 다양한 톤의 배색을 조화롭다고 지각하여 한국여대생보다 톤에 의한 배색의 분포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복수의 톤이 서로 짜맞추어졌을 때 조화영역의 좁고 넓은 정도가 문화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전보와 비교해 볼 때 동일한 톤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색상조합에 따른 72개의 톤 인 톤배색중 조화된다고 지각된 배색의 수가 한국이 10개 미국이 31개인 점을 감안한다면 양국여대생 모두 톤차이에 따른 톤 온 톤배색의 조화범위가 톤 인 톤보다 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색상을 기준으로 한 조화의 방법보다 명도차가 조화에 깊이 관여한다고 본 Moon과 Spencer의 견해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상·하의의 톤차이에도 불구하고 빨강, 초록과는 달리 노랑색의 경우 양국여대생 모두 부조화를 이루는 배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화정도가 구성색에 의해 어느 정도 좌우되므로 지각과정에서 톤에 의한 영향보다 노랑색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짜맞추어진 색채의 성질 또한 매우 중요해진다. 따라서 색상만으로 또는 색상의 톤만으로 배색조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색상과 톤은 분리되어 지각되는 것이 아니고 형태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조직화된 전체로 지각되어 조화정도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한·미여대생들은 명도변화에 따라 배색에서 조화-부조화라고 판단하는 배색이 나타났다. 특히 한국여대생은 상·하 톤차이가 있는 배색을, 미국여대생은 상·하가 같은 톤의 배색을 보다 조화된다고 평가하여 조화에 대한 판단기준은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동일문화권에서는 어느정도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 문화권에서 익숙한 배색을 조화롭게 지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한국여대생들은 전통적인 한복배색을 대하는 일상의 경험이, 미국여대생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suit의 개념이 조화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톤 온 톤배색의 평가에서 나타난 문화간의 상대적인 차이는 국제화시대의 디자인 산업에서 색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배색에서 치마·저고리의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하고 톤에 변화를 준 톤 온 톤배색 즉 명도차이에 의한 상·하배색이 조화를 이루는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문화별로 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배색유형에 대한 조화감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자의 범위가 한정되고 강의실에서 이루어져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경자(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

- 각반응연구(1) -톤 온 톤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731-742.
- 강혜원·고에란(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 고을한·김동욱(1999). 디자인을 위한 색채계획. 서울: 미진사.
- 금기숙(1992). 한국전통 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 19, 29-40.
- 김수석·윤김(1993). 조형심리학입문. 서울: 지구문화사.
- 박은주(1999).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232
- 오희선·박화순(1994). 의상디자인. 서울:경춘사.
- 유송옥(1996). 복식의장학. 수학사.
- 이은영(1992).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 이혜숙·김재숙(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지각(제1보) -여자 저고리·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 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597-606.
- 이호정(1999). 패션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p. 88, 76
- 임승빈(1986). 환경심리학태론. 서울: 보성문화사.
- 조필교·정혜민(1999). 패션디자인과 색채. 전원문화사.
- 한국표준색표집, 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
- Itten, J(1970). The Elements of Color, Van Nostrand Reinhold.
- Kabayashi, S(1981). The Aim and Method the Color Image Scale. *Clor Research and Application*, 16(2), 93-106.
- Winakor, G & Navarro, R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s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aearch Journal*, 5(2), 40-48.